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

-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 관련 산업에 집중투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의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모태펀드에 대비하여 실제 기업에 투자를 실행하는 벤처투자조합을 의미

- 제6호 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 제6호 자펀드를 끝어나갈 운용사는 1차(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발표평가,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어니스트벤처스’가 선정(‘23.6)되었으며,

-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펀드 운용사인 어니스트벤처스(02-6951-4776, simp06@honest.ventures)으로 문의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통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기존 국토교통 기술을 고도화 하는 한편, 새롭게 성장하는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면서,

- “국토교통 혁신펀드가 마중물이 되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0년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조성한 이래 현재까지 5개 자펀드를 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드론 등 48개 기업에 총 605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미래전략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백승호 (044-201-3411)
		담당자	서기관	강연근 (044-201-3261)



참 고

국토교통 혁신펀드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모태펀드(중기부) 내 국토교통혁신계정을 신설하여 혁신펀드 조성 및 국토교통·연관산업에 투자('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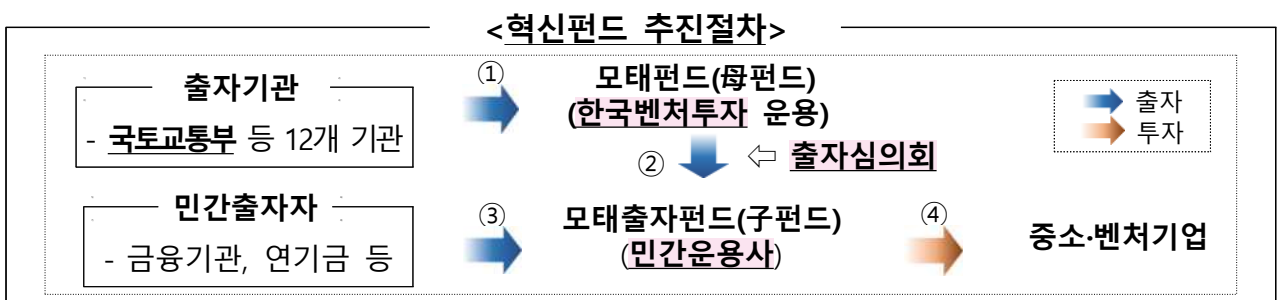
□ 펀드 운용현황

- 혁신펀드 내 자펀드 5개를 총 1,113억원 규모로 조성·운용 중
 - '23년 10월 기준, 48개사* 대상 605억원 직접 투자 완료
 - * 펀드간 중복 투자기업 제외

예산	구분	조성 규모	투자현황 ('23.8월 기준)	운용사	조성시기
'20	1호(일반)	170억(정부100+민간70)	149억(16개사)	패스파인더에이치	'20.9
'21	2호(일반)	176억(정부100+민간76)	79억(8개사)	경남벤처·제피러스랩	'21.12
	3호(특화)	180억(정부100+민간80)	100억(9개사)	패스파인더에이치	'22.3
'22	4호(일반)	170억(정부100+민간70)	27억(5개사)	이에스인베스터	'22.12
	5호(특화)	417억(정부100+민간317)	250억(14개사)	티인베스트먼트	'22.12
'23	6호(일반)	250억 이상 (정부150+민간100 이상)	-	어니스트벤처스	'23.12

* (일반) 국토교통 산업 및 연관 산업에 70% 이상 투자

(특화) '스마트시티, 물류, 건설, 드론, 자율주행, 그린리모델링' 등 6개 분야에 60% 이상 투자



*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운용기관으로 「벤처투자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 (출자심의회) 금융·법률, 산업, 과학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민간운용사 선정

□ 제6호 펀드 조성 및 운용

- 예산규모 축소 및 펀드 대형화 추세를 감안 단일펀드로 조성
 - 운용사 선정(어니스트벤처스) 및 민간투자자 모집 완료, 12월 결성